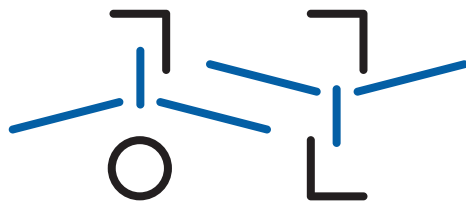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2  
**06**  
5 2 8

<http://azine.co.kr>



# Contents

|       |             |                                  |
|-------|-------------|----------------------------------|
| 04    | 취임사         | 제40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
| 06    | 기획          | Air 4s of Air Force              |
| 14    | 특집          | 하늘을 동경한 공군 여군의 역사                |
| <hr/> |             |                                  |
| 18    | Aero Detail |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의 공대공미사일        |
| 24    | 무에서 유를      |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 끝까지 적을 추격하라 |
| 28    | 내 옆의 공군인    | 일정(一精) 장상두 선생                    |
| 34    | 지금 이 순간!    |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



표 지(앞) 미래로 도약하는 정예 우주공군 (상병 배근찬, 일병 황원진)  
표 지(뒤) 순국선열에 경의를 표하는 공군 (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2년 6월 1일(통권 제528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5017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40    | 한 달, 한 권 |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
| 42    | 명상을 말하다  | 세상을 보는 눈                                       |
| 44    | 영화로운 나날  | 주인공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의 얼굴이 보인다                  |
| 46    | 클래식 톡톡   | 왜 공연장에선 먹을 수 없을까                               |
| 48    | 트렌드가 보인다 | 코로나19와 브랜드 소통                                  |
| <hr/> |          |                                                |
| 50    | 생각하는 그림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설                                 |
| 52    | 공군인의 편지  |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br>(공군본부 참모차장실 중사 허승재)             |
| 53    | 책읽는 공군   | 부정(不淨)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br>(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상병 김진웅) |
| 54    | 수용의 미학   | 망종                                             |
| 55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 제40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식전을 주관해주신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군이 있기까지 훌륭한 역할을 해주신 김두만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님들과 공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라카메라 연합사령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국민과 함께하는 바르고 강한 공군’ 건설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박인호 총장님께 높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의 모든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 미공군 장병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예 의하여 제40대 공군참모총장직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장관님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 첫째,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도발 양상에 대비해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해 나갑시다.

### 둘째,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혁신 4.0’을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 ‘우주작전 역량’ 등 앞으로 공군에게 필요한 능력과 새로운 과학기술 및 합동성을 고려하여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갑시다.

**셋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전쟁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인체계와 첨단시스템이 도입되고 무기와 장비들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투력의 핵심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곧 미래의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군사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병영 내에서도 세대 간 문화와 생각의 차이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일 때 건강한 병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지나온 공군이 있기에 오늘의 공군이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 공군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아 왔습니다. 총장도 우리 공군인 모두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일의 공군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총장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고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식전을 주관해주신 국방부장관님과 취임을 축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9년 동안 오직 국가안보와 공군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임하시는 박인호 총장님과 오랜 기간 묵묵히 정성을 다해 내조해주신 김은정 여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과 가족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 상 화**

# AIR 4S OF AIR FORCE

미래전장 환경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 첨단 기술 등장과 늘어가는 군비경쟁은 환경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일찍이 우주를 작전영역으로 채택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퀴텀 5.0」, 「공군비전 2050」 등 다양한 비전을 연구하고 기술적·조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비전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해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대한 로드맵이다. 이런 비전으로부터 주요 키워드를 선별해 공군은 공군 정체성과 독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핵심능력 「Air 4s of Air Force」(일명 ‘에어 포스 오브 에어포스’)를 발표했다. 정예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군이 제시한 미래 청사진, 「Air 4s of Air Force」를 살펴보자.

## Safe Guard(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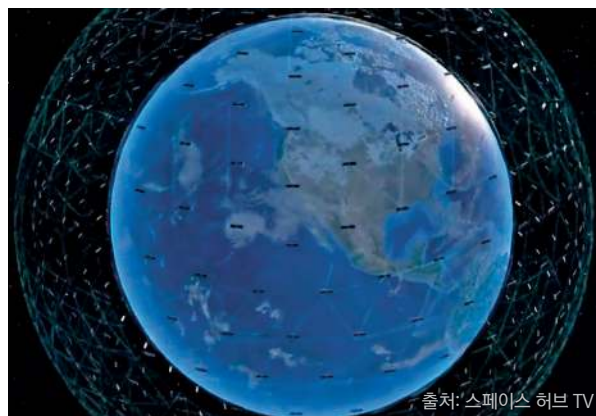
북한은 최근 초음속 미사일, ICBM, SLBM 등의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했으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내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액체 추진 미사일에서 운용이 더욱 용이한 고체추진 미사일로 전환하고 있고, 정밀항법장비를 탑재해 미사일 정확도를 향상함과 동시에 비행 중 속도와 궤도를 변경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은 2012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를 전력화해 북한 내륙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천궁-Ⅱ와 패트리엇 등 요격전력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한반도 전역에 산재한 주요 방어자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내륙을 제외한 동·서해상에서 발사되는 SLBM과 중남부지역에 대한 감시는 제한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요격전력의 경우도 사거리 제한으로 인해 미사일이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가속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미사일은 극초음속 영역까지 가속하기 때문에 요격을 위한 기회는 실제로 약 1~2회에 불과하다. 심지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일반 탄도미사일에 비해 요격이 더욱 어렵다.

Safe Guard의 목적은 보다 넓은 공간에서 적의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해 선제적인 타격 및 요격이 가능한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발사원점으로부터 적의 미사일을 빠르게 식별해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과 발사 이전 단계에서 TEL(이동형 발사대)의 이동을 식별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체계 전력화를 통해 우주 기반 탐지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천궁-Ⅱ



초소형위성체계 모형도

또한, 항공기 요격용 천궁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해 추가 배치하고 동시에 천궁-Ⅱ, 패트리엇보다 더욱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천궁-Ⅲ와 100km 이상의 종말단계 상층부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THAAD급 성능의 L-SAM 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北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 SAFE GUARD

우주기반의 조기경보위성과  
연계한 Kill Chain KAMD 체계 확보



초소형 위성체계,  
조기경보위성



미사일 방어



타격 자산



##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 SPACE ODYS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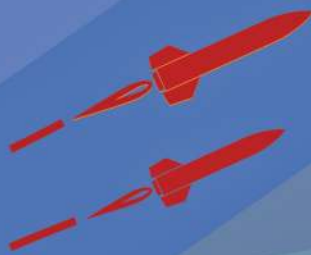
우주 전력의 중단없는  
전력화 및 노력의 통합



우주병과 신설



우주사령부 창설



적 이동발사대



지휘통제시설

# 핵심능력 강화



F-X 2차 추진,  
F-15K 성능개량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 STRIKE ADVERSARY

생존성과 치명성이 향상된  
Game Cha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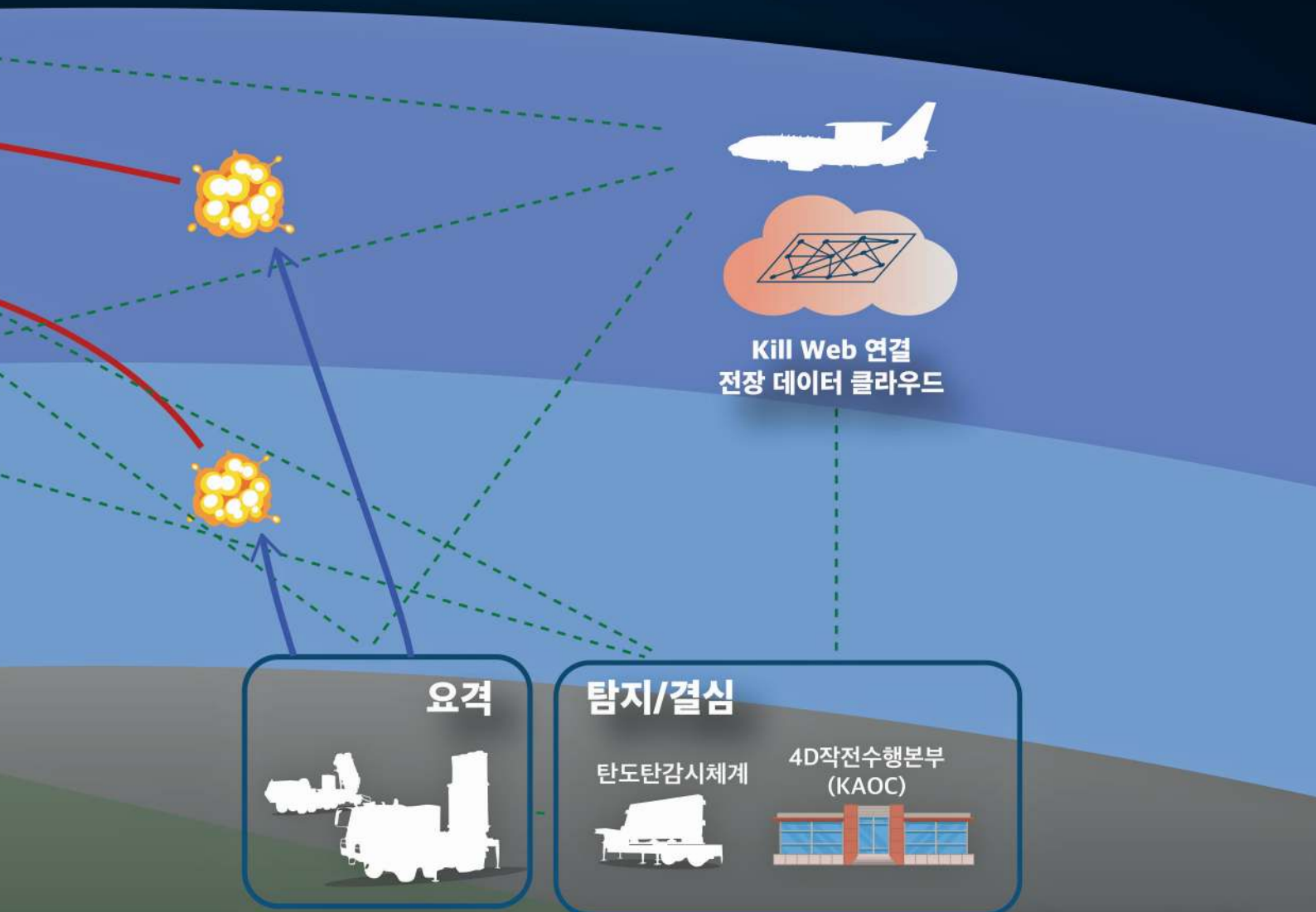
Kill Web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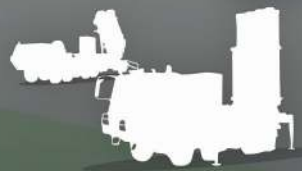
다영역작전 수행본부

##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 SMART C2

의사결정시간 단축으로  
다영역 작전적 우위 달성



### 요격



탄도탄요격체계

### 탐지/결심



탄도탄감시체계



4D작전수행본부  
(KAOC)

北 핵·미사일 대응 개념



현재 개발 중인 KF-21 한국형 전투기 모형도

## Strike Adversary(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

2035년 이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한반도 주변국 5세대 전투기 전력화 등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상대적 전력 격차는 더욱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은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전투비행체계인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는 1~2대의 유인 전투기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전투기 4~8대를 통제해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예측 불가능한 작전 수행과 여러 무인기를 운용한 광역 감시 및 다수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이 가능하다. 유무인 전력의 복합 운용은 소수 인적자원으로 다수 항공전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무인 전투기의 빠른 정보처리능력을 통해 급박한 전투상황 속에서 조종사의 상황판단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위협을 분산시키면서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지휘 통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과 치명성을 모두 가진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는 미래의 Game Changer로 볼 수 있다.

탐지-결심-타격으로 가동되는 직렬식 작전 개념인 Kill Chain을 보완해 탐지와 동시에 타격이 가능한 연속적 작전 개념 Kill Web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전투비행체계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 간 기술 통합과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KF-21 전투기는 성능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과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5세대 전투기로 발전이 가능한데, 이를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적 방어능력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군은 이와 더불어 F-X(차기전투기) 2차 사업 및 F-15K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국의 고성능 5세대 전투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High급 유인전투기 추가 확보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래 공군은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통해 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가장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First In Last Out’ 개념을 적용해 작전능력과 전투인력 생존력 모두를 얻게 될 것이다.

## Space Odyssey(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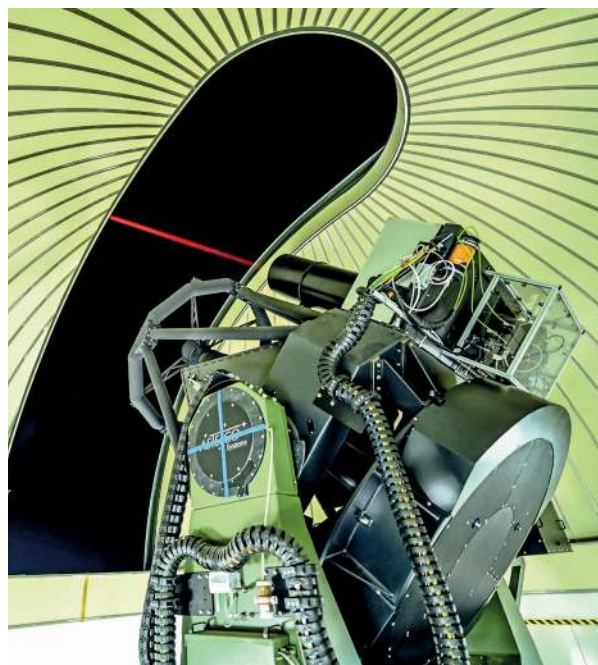
현재 우주는 미·중·러 등 주요 우주 선진국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작전영역이다. 우주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미래 전장에서 우주작전능력을 가진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 규정상 우주영역은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공중영역과 구분되지만 실제 우주와 공중 두 영역은 명확한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없는 유사한 성격의 3차원 공간이다. 위성이 공중자산을 감시할 수 있고 미사일과 우주비행체가 공중과 우주를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서로의 작전영역이 중첩된다. 결국, 우주작전은 우주와 공중을 아우르는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공군은 우주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0여 년간 우주 정책 및 작전개념을 정립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주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도 그 노력은 진행 중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주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은 단계별 우주전력 구축계획을 정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군은 제한적 우주감시능력을 구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공군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한 내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군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로 다양한 도발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방위 위협을 감시정찰하고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고출력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우주물체를 정밀 추적하는 등 24시간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기경보 위성체계 등을 도입해 전천후 우주감시와 대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된 우주작전 통제기구인 우주

사령부를 창설해 우주영역에서 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공군’ 완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민간 분야에서 우주 개발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주 선진국들의 경우 항공과 우주영역을 하나의 지휘체제로 연결해 국방우주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임무 군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방우주력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그간 구축해온 우주작전 기반 체계와 우주조직을 바탕으로 항공작전과 우주작전을 통합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Space Odyssey 개념은 우주로 도약하기 위해 묵묵히 대비해온 공군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공군이 국방우주력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을 감시하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 Smart C2(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등으로 다변화되는 현대 전장 영역에서의 승리는 지휘통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지휘통제는 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책을 도출해 우리 전력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전장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전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은 표적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전력배정을 추천하는 등 지휘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군은 이와 같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항공우주력 운용을 지원하는 견고한 지휘 본부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Kill Web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는, 기존의 직렬화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지와 타격을 병렬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결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공군은 현재 공군작전사령부에 편성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초 단위 지휘가 가능한 다영역작전수행본부(MDOC)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주자산,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공군 작전사령부, 비행단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Kill Web 구조로 인해 일부 자산이 파괴되거나 네트워크가 단절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공격과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러한 발전추세와 더불어 공군 전 비행단도 로봇, 무인기 기반의 기지방어와 원격통제체계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능형 스마트비행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공군은 전 영역에서 작전 우위를 달성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r 4s of Air Force(공군 4대 핵심능력 강화)’는 미래를 현실로 구체화하겠다는 공군의 강력한 의지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우주력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공군은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근간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전 공군인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해 나아갈 것이다. **AF**

# 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한 힘찬 발걸음 공군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하늘을 동경한 공군 여군의 역사



인간에게 있어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은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22년 12월 10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 일상을 잃어 가던 중 안창남이 조선 하늘을 힘차게 날았을 때와 1948년 9월 15일,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L-4 연락기 10대가 미군마크가 아닌 태극마크를 달고 서울 상공을 가로질렀을 때, 우리 국민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던 하늘에 대한 염원은 더욱 뜨거웠으리라. 그 모습에 열망과 포부로 가득 찼던 것은 비단 남성뿐만은 아니었다. 남성에게만 허락됐던 하늘을 누구보다 간절히 동경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공군 여군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공군 창군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여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되짚어보자.



여자항공교육대장 이정희 대위



『공군』 창간호 중 '공군과 여자항공병' 원문 일부

1949년 2월, 육군 항공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여군 항공부대, '여자항공교육대'가 창설되었다. 항공분야가 남성만의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틀을 깬 권기옥 선생의 활약은 여성들도 항공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식민지배 아래 2등 비행사 자격을 취득한 이정희는 해방 후 항공분야에서 여성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여학생들을 모아 항공인으로 육성하고자 했고, 항공부대 창설 후 중위로 임관해 여자항공교육대장으로 임명받았다. 여자항공교육대는 여학교<sup>1)</sup> 5·6학년 재학생 중 15명을 제1기생으로 최종 선발했으며, 제2기생 역시 여학교 재학생 38명을 입대시켰다. 이 여자항공병들은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조종, 정비, 통신, 기상 등 공군 각 기술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 부대를 순회하며 광범위한 과목을 학습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자 여자항공교육대는 공군 여자항공대로 변경되었다. 여자항공병들은 남성과 동일한 복장을 입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남자가 하는 일이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희 대위(당시)는 '우리 여자항공대는 그저 말로만 남녀동등권을 외치지 않고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 실력을 보일 것'이라 단언했다. 이정희 대위의 정신은 『공군』 창간호에 기고로 남아 있으며 이는 월간 『공군』 홈페이지에서 한글화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여자항공병들은 대개 중학교 6년을 졸업했거나 5년을 수료한 우수한 자원들로, 당시 공군은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의 항공분야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항공부문 중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려는 데 의의를 뒀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은 여자항공대 운영의 무수한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김포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여자항공대에는 이정희 대위를 포함한 총 42명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기습에 따른 아군의 후퇴와 지휘부의 귀가조치 지시에 따라 전부 흩어져야만 했다.

1) 당시 여학교는 6년제 중학교임

그 후 20여 명은 복귀하여 공군본부 소속 인사국, 작전국 등에 배속되어 부여된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이정희 대위를 포함한 일부 인원은 복귀하지 않은 채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마지막까지 공군에 남아 임무를 하던 조성에 이등중사, 윤금자 준위에 이어 김경오 대위가 1954년 10월 31일 전역함으로써 1949년 이정희 대위의 임관을 시작으로 한 5년 10개월의 공군 창군기 여군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됐다. 가장 마지막까지 공군에 남았던 김경오 대위는 L-19 항공기로 단독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의 벽을 완전히 돌파하기는 어려웠다.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서울에서 청주로 이전한 이후 공군은 1990년, 「공사 2020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생도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하고 우수한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군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방부의 여학생 입학 허용 검토 지시에 따라 공군은 여생도 모집에 더욱 열을 올렸다. 여생도 모집 조기 승인을 건의하고 사관학교 설치법과 학칙 개정을 상신하는 등 여생도 운영과 관련된 공군의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여성 수용시설 추가예산 소요, 훈육 및 생활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생도 입학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보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군은 향후 병력 자원 감소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여생도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때, 조종사 양성도 장기적으로는 여성에게 개방될 수 있으리라 평가했다.

1995년 4월, 국방부의 여생도 운영 인가에 따라 공사는 부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생도 선발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여생도 입학 허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남자로 한정된 입학자격 제한을 삭제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을 상실했다. 결국, 1996년 7월부로 공사 입학자격이 ‘남·여’로 확대된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1949년 2월 여자항공교육대 창설식 및 제1기생 입교식



여자항공교육대 창설식 당시 여자항공병(좌측부터 이명진, 박혜연, 정숙자)

공사는 1996년 49기 사관생도 선발 시 여생도를 최초로 모집했으며 공사에 이어 육군사관학교가 1997년, 해군사관학교가 1998년부터 여생도를 선발하고 있다. 당시 여생도 지원자 444명 중 모집정원의 10%인 20명이 최종선발됐다. 이들은 가 입교 기간<sup>2)</sup> 중 완전군장 무게를 제외하고는 남생도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 중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한 총 19명이 최초 공사 여자 사관생도로 거듭났으며 1997년 2월, 공사는 개교 48년 만에 최초로 여생도를 포함한 사관학교 입교식을 거행했다.



개교 48년 만에 최초로 입교한 공사 49기 여생도들



여생도를 최초로 모집하는 공사 49기 홍보 포스터

3군 사관학교 중 최초로 여생도를 받아들인 공사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97년,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사는 생활규정과 훈육지침서를 개정하고 여생도 전용시설 및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생도들이 학습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01년, 공사 49기는 졸업 및 임관식을 맞았고 드디어 공군 여군 소위가 탄생했다.

이후 초등-중등-고등비행교육과정<sup>3)</sup>을 수료한 2002년 9월, 공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조종사 5명(박지연, 박지원, 장세진, 편보라, 한정원 당시 중위)을 배출하는 역사를 썼다. 총 1년 9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이들은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고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장교와 더불어 공군 여군 부사관은 2001년 5월, 31명(공군 자체 양성)이 최초로 임관한 이래 현재까지 공군의 각 일선 부대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늘을 동경했던 여성 항공선구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은 오늘날 결국 그 결실을 맺었다. 현재도 공군 여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훗날 공군이 우주로 나아갈 그 순간에도 이들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AF

2) 입교 전 기본군사훈련 및 내무생활을 통해 사관생도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기간

3) 당시 비행교육과정으로, 현재는 입문-기본-고등-전술입문과정으로 개정됨



##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의 공대공미사일

### 중국의 공대공미사일

중국의 공대공미사일은 ‘PL-숫자’로 표기한다. 미사일 명칭에서 PL은 중국어로 벼락을 의미하는 霹雳(벽력, Píli)의 알파벳 문자를 줄인 것이다.

중국이 생산한 첫 공대공미사일은 PL-1이다. PL-1은 구소련 AA-1(K-5)을 중국이 면허생산한 것인데, 소련의 AA-1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성능 때문에 대량생산되지 못했다.

중국이 공대공미사일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는 금문도 상공에서의 공중전 때문이었다. 1958년 9월 24일, 금문도 상공에서 대만 공군 소속의 F-86F 세이버 전투기 편대는 중국 공군의 MiG-17 편대를 향해 AIM-9B 미사일을 발사했다. 기총에 의한 공중전을 준비했던 MiG-17은 기총 사정거리 훨씬 밖에서 발사되는 대만 공군의 공대공 미사일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운 좋게 미국의 불발된 AIM-9B 미사일을 확보한 중국은 공대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중국은 소련에 미국제 AIM-9B 미사일을 넘기며 군사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소련은 이때 확보한 미국제 AIM-9B를 복제하여 AA-2(K-13) 미사일을 만들게 된다.



JF-17에 장착된 PL-5EII



PL-8



PL-9

이 AA-2를 중국이 도입하여 면허생산한 것이 PL-2 공대공 미사일이다. PL-2는 중국이 대량생산하여 배치한 첫 공대공미사일이 된다. 이후 PL-2는 개량을 거치며 PL-3, PL-5, PL-6으로 파생된다. PL-3, PL-6은 대량생산에 이르지 못했지만, AIM-9L/M과 형상이 유사한 PL-5가 대량생산되었다. PL-5는 JF-17 전투기 등에서 현재도 운용되고 있다.

소련과 협력관계가 중단되면서 중국은 1980년대에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공대공미사일에 눈을 돌린다. 먼저 프랑스의 R.550 매직 미사일을 면허생산하여 PL-7로 명명하였다. PL-7은 소량 생산되어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스라엘의 파이슨3 미사일을 면허생산한 것은 PL-8이다.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PL-8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한 파생형이 PL-9다.

최신 중국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PL-10이다. IRIS-T 미사일을 연상시키는 외형의 PL-10은 영상 적외선 탐색기, 추력편향제어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적으로 미국의 AIM-9X와 비교될 수 있다.

중국은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PL-4, PL-11, PL-12, PL-15를 개발했다. 이 중에서 PL-4와 PL-11은 미국의 AIM-7 스페로우와 비교되는 중거리 미사일로 소량 생산에 그쳤다.



PL-1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중국의 현용 주력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PL-12이다. 미국의 암람과 비교되는 PL-12는 레이더 탐색기를 내장하고 있어 미사일 스스로 표적 포착과 유도가 가능하다. SD-10은 PL-12의 수출형 명칭으로, J-10, JF-17 전투기에서 운용된다. 서방측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최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PL-15다. J-20 스텔스 전투기 내부무기고에도 탑재되는 PL-15는 사거리가 150k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공군에 향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PL-12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SD-1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 프랑스의 공대공미사일

프랑스 공대공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미사일 못지않게 많은 실전경험을 갖고 있다. 중동전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라지 III 전투기에 탑재되어 아랍 국가 전투기를 다수 격추한 바 있고, 이란-이라크전에서는 이라크의 미라지 F1 전투기에 탑재되어 이란 전투기를 상대로 많은 전과를 올린 실적이 있다.

프랑스 공대공미사일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가 개발한 첫 공대공미사일인 R510은 특이하게도 광학유도방식을 사용했고, R511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방식을 사용했다.

프랑스 공대공미사일은 신형 전투기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에 들어 델타익 전투기인 미라지 III 후계기로 미라지 F1이 개발되자 무장 역시 그에 걸맞게 새로이 개발되었다. 신형 무장은 기존의 R530 미사일을 토대로 개량하지만 최대 사거리와 표적 포착능력을 기존 R530의 2배로 높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된 미사일이 슈퍼 R530F이다.

1970년대에는 중거리 무장인 530시리즈 외에 단거리 무장인 550 시리즈도 등장했다. R550 매직 1은 미국의 사이드와인더와 비교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전방의 소형 날개(카나드)가 2쌍이 더 붙어 있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쉽게 구분된다. 매직 1 미사일은 이란-이라크전에서 미그기에 탑재되어 많은 이란 전투기를 격추한 실적이 있다. 매직 2는 탐색기를 개선하고, 사거리를 증대시킨 파생형이다.

최근 프랑스 공대공미사일을 대표하는 것은 미카(MICA) 미사일이다. 미카는 미국의 암람 미사일과 비교되는 미사일로 최신 전투기인 라팔과 미라지 2000 전투기에서 운용된다. 프랑스는 단거리 전용의 R550과 중거리 전용의 R530을 각각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카라는 단일 미사일로 한꺼번에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게다가 미사일 앞부분의 유도부만 교체하여 적외선 유도방식과 능동레이더 유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단일 미사일로 단거리와 중거리, 적외선과 레이더 유도방식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개념은 서방측에서는 기존에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프랑스가 신형 전투기 라팔과 함께 신개념으로 등장시킨 미카 미사일이 과연 현대 공중전에도 적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550 매직 2 미사일



미카 적외선 유도방식 미사일



미카 레이더 유도방식 미사일

## 이스라엘의 공대공미사일

수차례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은 무장과 센서 등 핵심 무기체계를 대부분 독자 개발하여 전력화시키고 있다. 공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대공미사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스라엘은 1959년부터 자국이 개발한 공대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개발한 공대공미사일은 미국의 사이드와인더를 모방한 샤프릴(Shafir) 1 이다. 샤프릴 1은 적외선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성능이 우수하지 않았지만 후속 미사일인 샤프릴 2 개발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초에 등장한 샤프릴 2 공대공미사일은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공군기에 탑재되어 전과를 올린 바 있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명칭에 더 이상 샤프릴을 사용하지 않고, 비단뱀을 의미하는 파이스(Pyton)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 샤프릴 2의 후속 미사일로 등장한 것이 파이스 3 미사일이다. 1978년에 개발이 완료된 파이스 3 미사일은 적기의 후방뿐만 아니라 적기의 전방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탐색기가 개선되었다. 파이스 3은 사이드와인더 AIM-9L형과 비교되며, AIM-9L 보다 전반적인 성능이 우수하다. 파이스 3은 1982년 베카계곡 공중전으로 유명한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 단거리 미사일로 사용되어 아랍 공군기 50여 대를 격추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미사일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게 만든 첫 미사일은 파이스 4이다. 파이스 4는 1985년에 핀란드에서 MiG-29 전투기와 함께 AA-11 아처 공대공미사일과 헬멧 조준기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대한 우월감으로 아처 미사일을 무시하다가 독일 통일로 실체를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다. 사이드와인더의 미사일 성능 열세를 미국이 인정하고 개발이 시작된 것이 바로 슈퍼 사이드와인더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달리 1980년대에 이미 신속하게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94년에 아처보다 우수한 파이스 4를 배치시킬 수 있었다. 파이스 4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헬멧 조준기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헬멧 조준기와 연동 시 파이스 4는 전투기 전방에 대해 각도 제한 없이 사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파이스 4는 복잡할 정도로 많은 조종면을 갖고 있어 기존의 공대공미사일보다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더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좌),  
파이스 5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우)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파이스 5는 파이스 4와 외형이 같다. 파이스 4의 기동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파이스 5는 파이스 4의 공력설계와 동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파이스 5는 신관부터 앞쪽의 유도부를 재설계하여 유도 성능을 향상시켰다. 파이스 5는 개발된 지 3년 만인 2006년경에 크기가 작아 요격이 어려운 헤즈볼라의 아바벨 무인기를 실전에서 격추해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파이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단거리 미사일 외에 더비(Derby) 중거리 미사일도 2001년에 등장시켰다. 암람 미사일과 유사한 더비는 암람보다 소형 경량이고, 능동레이더 유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더비는 암람과 달리 중간에 표적 정보 갱신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파이스 4/5와 결합할 때 발사범위가 최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전으로 다져진 이스라엘의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무기체계라 할 수 있겠다.

## 일본의 공대공미사일

일본 공대공미사일 명칭은 “AAM” 뒤에 일련번호가 붙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미국 공대공미사일이 “AIM” 뒤에 4, 9, 120 등 불규칙적으로 일련번호가 붙는데 반해, 일본 미사일은 개발된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붙여지고 있다.



AAM-1 공대공미사일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등장한 일본의 공대공미사일이 AAM-1이다. AAM-1은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의 가장 초기형인 AIM-9B의 일본 복제형이다. 1960년부터 8년간 개발된 AAM-1은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인해 소량이 생산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AAM-1의 후속으로 개발이 시작된 AAM-2 역시 부족한 성능 때문에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다.



AAM-3 단거리 미사일

일본이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한 첫 공대공미사일은 AAM-3이다. 1990년에 개발이 완료된 AAM-3은 미국의 AIM-9L형 사이드와인더와 비교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적외선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AAM-3은 미사일 앞부분의 조종날개가 독특한 모양으로 설계되어 사이드와인더와 쉽게 구분된다.

일본 공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사일은 AAM-4다. AAM-4는 일본이 우수한 전자기술을 집약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일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개발은 1994년에 시작되어 1999년에 항공자위대에 배치되었다. 유도방식은 능동 레이더유도 방식과 관성/지령유도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AAM-4는 미국의 암람과 비교되는 미사일이다. 양 미사일 모두 중거리 미사일로 개발되었고, 유도방식도 유사하다. 다만 크기와 중량면에서 AAM-4가 암람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AAM-4의 크기는 AIM-7 스페로우 미사일에 가깝다.



AAM-4B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일본 F-15J 전투기는 AAM-4뿐만 아니라 암람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이들 미사일 운용에는 디지털 데이터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F-15 중에서 후기형인 약 100대가량만 AAM-4 운용이 가능하다. AAM-4의 명중 정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특유의 전자기술에 힘입어 전자전 능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소형의 저고도 표적, 특히 순항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람보다 큰 AAM-4의 탄두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이다. 순항미사일에 대한 AAM-4의 요격능력은 실사 시험에서 무인기 표적이 아닌 ASM-2 대함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으로 성능이 검증된 바 있다. AAM-4는 고가의 획득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용부품을 적용하고, 사거리, 대전자전 능력 향상,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 탐색기 등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킨 개량형도 개발되었다. 개량형의 신형 탐색기 기술은 영국과 일본이 최신 공대공미사일로 공동 개발 중인 JNAAM(Joint New Air-to-Air Missile) 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AAM-5 단거리 미사일

최신 단거리 미사일인 AAM-5는 외형과 성능 면에서 유럽의 IRIS-T와 유사하다. AAM-3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AAM-5는 기축선 밖 요격능력과 헬멧 조준기 연동, 영상 적외선 탐색기, 추력편향기술 등 최신 단거리 미사일의 추세를 대부분 반영하여 개발되고 있다.

지난 호와 이번 호에서 살펴본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 공대공미사일은 대부분 타국에 수출되어 공개되어 있고, 일정 부분 성능파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공대공미사일은 자국만 사용하고 있어 성능파악과 대응이 까다로운 편이다. 향후 일본의 중장거리 공대공 무장은 JNAAM이 주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JNAAM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F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 무에서 유를

##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 끝까지 적을 추격하라



글쓴이 소개 『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훈련은 반드시 실전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눈앞에 창칼이 날아들든,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든 떨쳐낼 수 있다. 맹렬한 훈련은 실제 전투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숙련된 신체 움직임을 보장하는 백신과 같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적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조선전기 주적은 북방의 야인(野人)이었다. 그중에서도 압록강 너머 조선과 근접해 살고 있던 여진족들은 여러 부족을 이루며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다. 강만 얼어붙으면 그 위를 말을 타고 달리며 신속 정확하게 조선국경과 근접한 마을을 약탈했다. 그러고는 조선군에게 침략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그들은 강 너머로 도망가 버렸다.

유목민은 단순하다. 한곳에 오래 머물며 농사를 짓는 정주형 공동체와는 다르게 그들은 자주 삶의 터를 옮겨 다녔다. 거추장스럽거나 복잡한 것은 모두 없애 최대한 단순한 삶을 살아야 이동하기 편해 더 단순하고 거칠어진 것이다. 종이로 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오래된 전통 유물이나 전투에 부적합한 것은 현장에서 없애버린다. 만약 그것들을 끌고 여기저기 다닌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필요하다면 말을 타고 달려가 약탈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것이 거친 초원에서 살아남는 유목민의 생존전략이었다.

조선의 국왕 중 무예 실력이 가장 뛰어난 무인으로 손꼽혔던 세조가 직접 쓴 병법서인 『병장설(兵將說)』을 보면, 조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여진족의 전술 형태와 특성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여진족은 보병이 전혀 없으며, 오직 1천여 명의 빠른 기병만으로 부대를 운영했다. 이들 중 지휘관들은 작은 목패(木牌)를 옷이나 말에 부착하고 부하들을 통제했는데, 50명을 한 개 부대로 만들어 단독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이 한 개 부대는 선두에 20명이 철갑옷을 입고 긴 창으로 무장하여 선봉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30명이



마상무예 등 다양한 훈련 모습이 담긴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중 일부

아주 가벼운 갑옷에 활과 화살로 무장하여 빠른 기동력을 확보하였다. 만약 적과 만나면 반드시 2명이 함께 짝을 이뤄 먼저 달려나가 척후병처럼 적진의 허와 실을 살피고, 두 부대로 나뉘어 양동작전을 펼쳤다. 보통은 100보(약 120m) 밖에서 일제히 화살을 날려 초반에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대를 10명 혹은 5명 단위로 작게 쪼개거나, 주변의 또 다른 부대와 협력하여 수백 명 단위가 단숨에 적을 협공하는 전술 방식이었다.

당시 여진족은 이웃을 마치 형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저 눈빛만으로도 빠른 전술 전개가 가능했다. 심지어 여성들과 아이들도 기마술에 능했고, 매일같이 전투마를 타고 목축이나 사냥을 했기에 그들에게 마상 전투는 일상이며 삶 그 자체였다. 이처럼 말은 그들에게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특히 1430년대 후반에는 압록강의 지류였던 파저강(婆猪江) 일대의 여진족 부족인 건주위(建州衛) 이만주(李滿住)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했다. 거기에 1449년에는 명나라 황제가 몽골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건인 ‘토목(土木)의 변’이 발생하는 등 북방 야인들이 한 개의 국가 단위로 성장할 정도로 힘을 키웠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은 수천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한꺼번에 운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만 했다.

조선은 기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승전략을 세웠다. 그것이 문종때 완성된 『진법(陣法)』에 담긴 전군 합동 운용 전술체제였다.

이후 여진족의 마상무예와 전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조가 직접 고안한 무예가 바로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이었다. 세조의 업적 중 군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조선 그 어느 국왕보다도 탁월했다. 세조는 실전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전술들을 군사훈련에 그대로 접목시켰다. 이 두 가지 무예를 합쳐 삼갑전법(三甲戰法)이라 부르기도 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뒤에 쫓아오는 적을 쏘는 기법인 배사법



말 위에서 긴 창으로 적을 찌르는 기창

먼저, 삼갑사를 훈련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렇다. 보통 2명을 한 개 조로 하여 갑(甲)·을(乙)·병(丙) 세 개 조로 나눈 후 한꺼번에 말을 달리면서 활로 상대부대를 쏘아 맞추는 방식이었다. 말을 때는 여진족을 상징하여 4명에서 9명까지 인원을 확대하여 3개 부대로 운용하기도 했다. 이때 소속 부대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갑옷에 색깔이 달린 형겼을 매달도록 했는데, 현재의 피아식별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북소리를 시작으로 3개의 부대가 동시에 출격한다. 이때 갑은 을만을 공격할 수 있고, 을은 병만을 공격할 수 있고, 병은 갑만 공격할 수 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의 화살을 적절하게 피하면서 또 다른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지축을 올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추격전이 시작된다.

특히 활의 경우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적을 추격하는 방식이었는데, 같은 조원끼리 합을 맞춰 물이를 하거나 미리 상대의 진행 방향을

예견하는 등 적절한 전술 구사가 가능했다. 주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최대한 실전에 가깝도록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삼갑사(三甲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화살의 날카로운 축을 제거하고 화살의 끝을 가죽으로 감싼 형태인 피두전(皮頭箭)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화살 끝에는 붉은색 물감을 묻혀 만약 상대방이 이 화살을 맞으면 몸에 박히는 대신 붉은 점이 남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즘 예비군 훈련 때 페인트 탄과 총, 그리고 방어구로 무장한 서바이벌 게임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미 페인트 탄을 이용한 모의 사격 훈련이 조선시대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공격 시 만일 피아식별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군을 쏘거나 쓸데없이 헛 화살들이 허공을 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훈련이 종료되면 징을 쳐서 서로 퇴각 신호를 주고받은 후,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와 각 부대원의 몸에 묻은 붉은 점의 개수를 파악하여 승패를 나눴다.

특히 기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리춤에 휴대용 화살집인 시복(矢箠)을 착용하는데, 이곳에는 보통 긴 화살인 장전(長箭) 20개와 애기살인 편전(片箭) 15개 정도를 기본 무장방식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화살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삼갑사를 진행했다. 현대군도 마찬가지지만,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탄창의 개수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아군의 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적에게 유효적절한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일발필중’의 정확한 사격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투 중 아군의 탄약이 떨어지고, 보급이 지연되는 상황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갑창의 경우도 비슷했다. 세 개 조로 나뉘어 긴 창으로 무장한 기병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격하는 방식이었다. 이때에는 삼갑사에서 피두전을 사용했듯이, 삼갑창에서는 쇠로 된 날카로운 창날을 빼고 가죽으로 끝 부분을 감싼 피두창(皮頭槍)을 따로 만들어 활용했다. 역시 피두창 끝에는 붉은색 물감을 묻혀 상대방에게 정확히 찌른 개수를 확인하여 승패를 갈랐다.

그래서 아주 근접거리까지 창을 들고 말 달려 상대의 등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야만 점수로 인정되었다. 삼갑사와는 다르게 삼갑창은 아주 근접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

는 방식이었기에, 마치 큰 원을 그리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격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굳혀져 갔다. 이후 2개 조만으로 나뉘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훈련하는 갑을창(甲乙槍)과 갑을사(甲乙射)도 삼갑전법에서 파생된 기병 특수 무예훈련으로 고착되었다. 여기에 지난 월간 『공군』 5월 호에서 설명한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털 공을 맞추는 모구(毛毬) 훈련까지가 군사들의 승급시험의 일종인 관무재(觀武才)의 핵심 종목으로 인정받았다.

삼갑사나 삼갑창 그리고 모구는 훈련하는 사람도 짜릿하고, 보는 사람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같았다. 군사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관람객이 되어 그 무예훈련 광경을 함께 즐기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희·관람형 무예가 조선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무리 군사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재미있게 배우고 익히면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동기부여도 될 것이며, 더 날카롭게 무예 기술을 연마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익숙함이 바탕이 되어야 실전에서 흔들림 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AF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기창교전의 모습

제38화 일정(一精) 장상두 선생

#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월간『공군』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3세로, 한평생 서예를 사랑하고 있는 일정(一精) 장상두라고 합니다. 제 호인 일정은 ‘오직 한 길을 가면서 한결같이 정교로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친(家親)께 서예를 익힌 후부터 지금까지 늘 붓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예를 평생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를 느끼며,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한국미술협회 대외협력·대외사업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미술인 특별상인 ‘미술문화공로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달구벌신협문화원장, 한국청소년신문사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고문 등으로 국가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로 2013년 6월부터 경로당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노인 및 아동 복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구시 교육감 감사패, 수성구청장 표창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서예로 한 길만 가다 보니 공군과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수많은 공군인에게 좌우명 등을 써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 현재는 그 양이 무려 1,200여 점에 달한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과 특별한 인연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서예를 시작한 이유

제 가친께서는 훈장이셨습니다. 그 옛날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훈장님 말입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 한문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충(忠)·효(孝)·예(禮)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우쳤어요. 자식에 대한 가친의 훈육방침 또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가친은 제게 항상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한문과 서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예를 배워 오면서 느끼는 것은 서예는 윤리, 도덕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요. 저는 지난 36년 동안 영남대학교에서 서예전공과목강사 겸 교직원 2급으로, 또 20년 동안 수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예전문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의 중요성입니다. 서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3요소는 자세, 집필법, 용필인데 이는 서예의 기본임과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접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가 단지 어느 한 학문에 머물러있다고기보다 공학이자 인체학이며 인문학인 융합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一精) 장상두 선생



장상두 선생의 붓

당시 제 학생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제게 배웠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 스승으로서 보람과 뜻 깊음을 느낍니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응용보다 전통한자기법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예로부터 이어온 우리 정신과 혼이 변형되고 잊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 공군과 인연을 맺다

아직 날짜도 기억할 정도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014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님이 공군남부전투사령부(現 공군전투사령부)에서 사령관으로 복무하실 때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과 지역 기업 CEO를 초청해줘 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령부에 방문했을 때 제가 1962년도에 학보병으로 군 생활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면서 군이 그동안 헌신해 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공군과의 만남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 이인동심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 즉 두 사람이 합심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의 글을 써갔습니다. 정경두 전 장관님이 당시 제11전투비행단장이셨던 조광제 장군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었죠. 글을 받은 정경두 전 장관님이 제 마음을 알아봤는지 정말 고마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시고는 공군본부에 걸어 놓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작품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저는 군인의 기본이자 공군의 사명인 영공 방위(領空防衛) 임무완수(任務完遂),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 본분(軍人本分)을 큰 종이에 적었습니다. 전 영역에서 조국 영공 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군 장병들을 생각하며 적었었죠. 그렇게 드린 작품은 현재 공군본부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장병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있고 인연의 시작을 선물해준 정 전 장관님과 서로 마음의 스승으로 심축하면서 여전히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에 전시되어 있는 장상두 선생의 작품

## 남은 날까지 기증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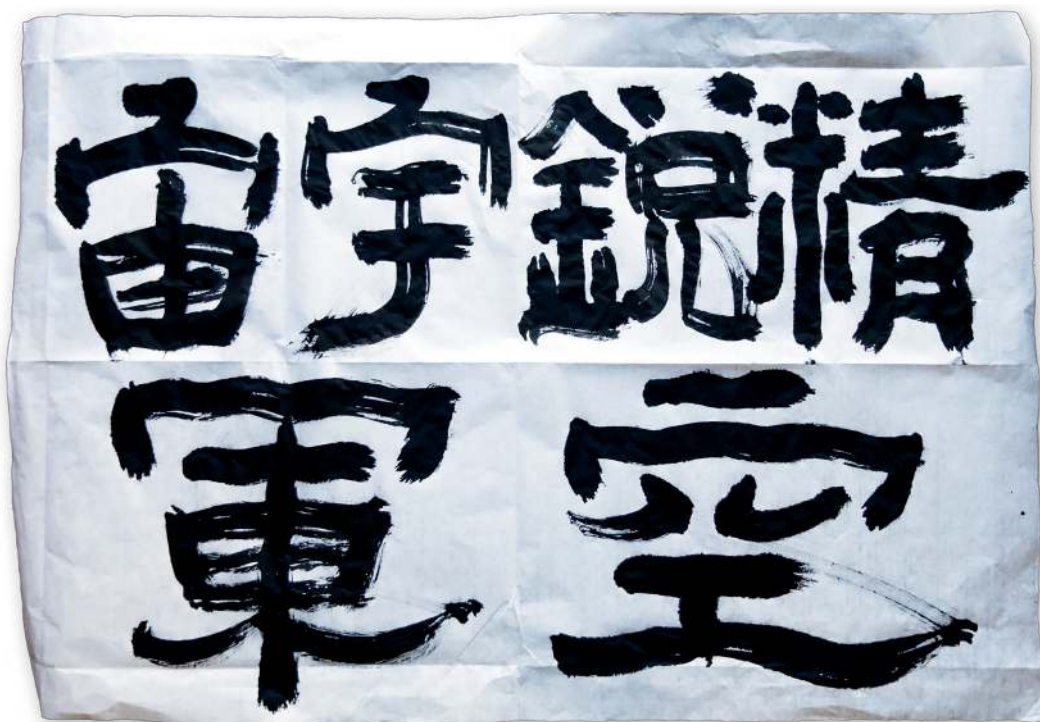
첫 만남을 계기로 공군 각 부대(서)에서 제게 부대 휘호를 요청해왔어요. 처음에는 부대를 대상으로 써줬는데 제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점차 일반 장병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웃음) 덕분에 여러 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비행단 등 다양한 공군 부대를 방문해 교육도 하고 장병들의 좌우명을 받아 정성스레 써주기도 했습니다. 좌우명이 없는 장병이라면 제 좌우명인 자강불식(自強不息)을 써줬습니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써준 좌우명에 맞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공군군수사령부 방문 당시 서예 퍼포먼스

제가 기증한 작품 수를 헤아려보니 자그마치 1,275점이었습니다. 83세라는 젊지 않은 나이에 휘호를 쓰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제 작품을 받고 행복해하는 장병들을 보면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 에너지는 공군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머문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이 노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 작품을 기증하다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꿈이거든요.(웃음) 붓글씨를 쓰다 보면 어지럽고 심란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와 자세를 유지해야만 좋은 글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한 글을 쓸 때면 나의 정성을 선물한다는 생각을 갖고 간절하게 한 자 한 자 적어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일지 몰라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집중해서 쓴 글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군에 기증한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서예를 사랑하고 또 공군을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장상두 선생이 쓴 정예우주공군(精銳宇宙空軍)

## 공군에게 하고픈 말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지켜보는데, 공군력이 각 전투마다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영공방위 임무만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데, 우주까지 도약하려는 공군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주로 공군이 우주군을 운영하던데 우리나라도 어서 국방우주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군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면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불철주야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군 장병들에게는 세 가지 사자성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확립되면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正本淸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이 역시 기본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일체감이 중요한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장병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인연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인연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흔히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정해줬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관리를 해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소중한 인연을 섬기고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인연을 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장병 여러분! 늘 기본을 생각하며 남은 군 생활도 건강히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휘 지침이나 좌우명 등을 써드릴 테니 숙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AF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호국보훈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정기음악회

AIR FORCE BAND ANNUAL CONCERT

JUNE 21, 2022 (TUE) 19:00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 BLUESQUARE | Mastercard Hall



| 지휘 |

공군 군악대장 소령 **백호열**

美8군 군악대장 준위 **윌리엄 맥컬리**

| 출연 |

공군 군악대

공군 의장대

美8군 군악대

가수 **인순이**

성악 **박미자**

사회 **강아랑**

| 예매 및 문의 |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문의번호. 02-785-0805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하비행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5월 5일(목),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실시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하비행을 지원하며 어린이들에게 항공우주의 꿈과 비전을 심어줬다.





## 제39·40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제39·40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5월 27일(금),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신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 진급·보직신고 및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정상화 참모총장은 5월 27일(금),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삼정검(三精檢) 수치(綬幟)를 수여받았다. 장성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을 달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보직자 계급과 이름, 임명 일자 등이 새겨져 있다. 신고에 이어 참모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헌화와 참배를 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공군 지휘관 회의



정상화 참모총장은 5월 30일(월),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참모총장 지휘의도를 공유하고 현 안보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공군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공군사관학교

### 우주교육 및 연구 발전 추진회의

공군사관학교는 5월 12일(목), 학교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 우주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우주교육 및 연구 발전 추진회의를 실시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016년, 항공우주분야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 특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3단계에 걸친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사령부

### 제242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교육사령부는 5월 4일(수), 연병장에서 제242기 공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신임 부사관 320명은 특기교육 수료 후 각 부대에서 정예 우주공군 임무완수를 위한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 제1전투비행단

### '22-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제1전투비행단은 5월 11일(수), 선봉문화관에서 '22-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입문-기본-고등비행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신임 조종사 40명은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았다. 신임 조종사들은 각자 부여받은 항공기종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제8전투비행단

### 한미 연합 의무지원 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5월 11일(수),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량 전상자 처리 및 의무후송 지원절차 숙달을 위해 한미 연합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 장병들은 유사시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군 전상자를 수송기로 신속히 후송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의무후송 능력을 점검했다.



## 제16전투비행단

### '22-2차 재난통제 숙달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10일(화), 공습경보 발령 시 행동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22-2차 재난통제 숙달훈련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화재, 불발탄 발생, 화생방 오염 등 각 상황에 맞는 재난통제 절차를 점검하며, 단위부대 방호능력을 평가했다.



## 제39정찰비행단

### '22년 전반기 심폐소생술 교육

제39정찰비행단은 5월 3일(화), 지휘관과 참모를 대상으로 '22년 전반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져 장병과 군무원의 생존능력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 한 달, 한 권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이젠 좀 덥죠? 벌써 군복 아래로 땀이 줄줄 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벚꽃도 지고 라일락도 지고 꽃의 여왕이라는 장미도 이미 졌거나 머잖아 가려 합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무덥거나 많이 습하진 않으니 혹시 자투리 시간이 난다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책을 들고 앉으면 어떨까, 그때 여러분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으면 좋겠다고 후방의 한 사람은 생각하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김민섭 작가의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입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등 여러 책을 쓴 김민섭 작가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들립니다. 그냥 영향력이라 하지 않고 왜 꼭 선한 영향력이라 하는 걸까요? 강하지만 선하지 않은 타인이 많아서일까요? 저자 김민섭은 몇 년 전 엉뚱하고 신선한 판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가려다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는 쓰지 못하게 된 항공권을 적게 환불받으니 다른 이에게 선물하자는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발권된 항공권은 양도가 안 되지만 방법이 없진 않았습니니다. 김민섭 씨와 이름은 물론 성별이 같고 영문 알파벳까지 같으면 가능하답니다. 김민섭 씨는 이걸 알고 그런 김민섭 씨를 찾는 일에 돌입합니다. 전국의 김민섭 씨 중에 영문 명도 KIM MIN SEOP으로, 자신과 같은 남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일명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김민섭 씨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졸업 전시 비용을 벌기 위해 휴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김민섭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제안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항공권이 있어도 현지 여행비가 없으면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숙박비를 대겠다는 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쓰고 남은 현지 교통 이용권을 양도하겠다는 사람까지 이런저런 호의를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휴학생 김민섭 씨는 무사히 후쿠오카를 다녀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착한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초 단위로 바쁘게 사는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결 여유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웃어 주었고 웬만하면 먼저 가라며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어요. 서울에 돌아가면 저도 그렇게 친절해지겠다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받은 호의를 저도 베풀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웬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조금이라도 먼저 할 생각에 무빙워크에서도 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뛰고 있더군요. 하지만 타인의 선함을 경험하거나 옆에서라도 지켜보게 되면 자신도 타인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잠시라도 성선설을 믿게 되죠. 다시 생각해도 <김민섭 찾기>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 환기시킨 신선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내용을 비롯해 책에는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와 경험담이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이었는데 상대 차의 기사분은 부딪힌 데를 쓱 보시곤 별거 아니라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낯은 차라 괜찮다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 얼마 후 이번엔 다른 차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 제 차는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였어요. 심하게 긁힌 건 아니었지만 표는 났습니다. 그 차주는 새 차에 죄송하다며 당장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까짓 걸로 수리하는 건 낭비라고 제법 멋진 척을 하면서요. 제가 받은 호의가 그렇게 이어진 거죠. 선한 영향력의 연결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이 책은 재미있습니다. 웃기자고 작성하고 쓴 문장이 아닌데 웃음이 납니다. 요즘 책답게 판형이 작아 자칫 가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의견들이 여기저기에 들어 있어요. 특히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 운전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후 기어이 정정하는 대목을 읽을 땐 마치 내 일인 양 속이 시원해지죠. 선한 호의가 때로는 약함으로 치부되고 악용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선함이란 무조건 착하기만 하거나 무력하다는 뜻이 전혀 아님을 확인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 방송 ‘유퀴즈’에서도 김민섭 작가를 주목했더군요. 지난 5월, 작가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민섭 작가와 덕분에 후쿠오카에 다녀온 휴학생 김민섭 씨도 함께 출연해 뒷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는데 작가는 다시 생각해도 목이 탄다고 하더군요. 종종 ‘지옥’과도 같이 여겨지는 타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 저자는 썩 괜찮은 답을 내놓습니다. 느슨한 연결과 선한 영향력! 책을 읽으며 선한 영향력이 가져다주는 한 줄기 상쾌한 바람을 느껴 보시죠! **AF**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김민섭 지음  
창비 펴냄



####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명상을  
말하다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어떤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면 세상도 달리 보일 것입니다. 푸른색 안경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푸를 것이고, 붉은색 안경알을 통해서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붉겠지요. 말하자면 어떤 색 안경알을 선택할지가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이는 물건의 원래 색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나요? 빨간색 사과가 우리에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사과가 태양광선 중에서 빨간색을 우리에게 반사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사과의 원래 색은 빨간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디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내게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있는 걸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이지요.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하고는 상대방에게 그 견해를 주입하려 합니다. 그래서 온갖 분쟁과 소동이 일어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은 ‘견해’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견해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따져 볼 문제입니다.

###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떤 견해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내가 선택한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세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의 관점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as it is)’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명상에서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려 하는 노력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노력이 그렇듯이 명상을 거듭할수록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갑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보다 순수한 눈을 얻게 되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 “명상을 통해 객관성과 지혜를 기웁니다.”

여러분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모습은 같지 않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숭고하고 고귀한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법칙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어느 풍자가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나 선입견 또는 편견을 투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일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대나 선입견을 투사하여 세상을 본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속 편하게 명상이나 하고 있다면서 명상을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려 나가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알고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 즉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만들어가는 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고, 결국 세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 영화로운 나날



주인공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의 얼굴이 보인다

정체불명의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20년 상반기. 이 시기 개봉한 영화들은 아무리 대작이라도 전체 관객 몇십만 수준에 그치며 그야말로 흥행성적에서 죽을 췌다. 그 험난한 시기에도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영화관으로 향했었다. 영화 『1917』이다. 아침 일찍 관객이 다섯 명도 되지 않는 영화관에서 숨죽여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건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인데’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어떤 영화는 영화관에 꼼짝없이 갇힌 채로 몰입해서만 봐야만 감동이 온전히 전달되기 마련이다.

『1917』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의 첫 장면, 나무 아래에서 군모를 덮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병 블레이크(딘-찰스 채프먼)를 병장이 발로 툭툭 차서 깨운다. “군장 챙기고, 한 명 더 데려와”라는 말과 함께, 블레이크는 마침 옆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던 일병 스코필드(조지 맥케이)를 깨워 데려간다.

지휘실에서 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블레이크의 형이 속해있는 2대대가 퇴각 중인 독일군을 추격해서 내일 일출 직후에 공격을 감행할 계획인데, 독일군 포병대가 전례없는 수준의 병력을 갖추고 있어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2대대에 전해서 공격 개시를 멈춰야 하지만, 독일군이 통신선을 다 끊고 퇴각했다. 육군 대장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에게 “네 형을 포함한 1,600명, 2개 대대를 잃고 싶지 않으면 적진 한복판을 가로질러 14km를 이동해 작전 취소 명령을 중령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친형을 살려야 하는 문제 앞에서 명령 거부하는 있을 수 없다. 영화는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의 험난한 여정을 2시간 동안 함께 한다.

얼핏 스토리만 들었을 때 영화 한 편이 떠오르지 않는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 한복판을 지나야만 하는 임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유사하다. 『1917』은 1차 세계대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막상

『1917』을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여느 전쟁영화들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7』에는 『딩케르크』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물량 공세를 퍼붓는 화려한 폭격신도 없고, 심장 졸깃하게 만드는 음향효과나 OST도 없다. 이 영화는 오롯이 두 명의 인물에게만 집중하는 좁고 깊은 전쟁영화다.

『1917』의 샘 멘데스 감독은 시각을 좁히기 위해서 독특한 촬영기법을 택했다. 컷을 잘게 끊지 않고 마치 한 컷을 이어서 쭉 촬영하는 듯한 롱테이크 기법이다. 러닝타임 119분 내내 마치 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장면이 이어진다. 물론 정말 한 번에 모든 장면을 찍지는 않았고, 몇 개의 롱테이크신을 촬영한 후에 편집 점을 알아볼 수 없도록 교묘하게 이어붙인 ‘원 컨티뉴어스 샷’ 촬영을 통해 이같이 연출했다.

카메라 워크도 독특하다. 카메라 프레임이 주인공 두 명과 매우 근접해있으며, 이들의 시선으로 전장을 바라보는 듯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 참호 속에 들어갈 땐 카메라의 시선도 같이 낮아지고, 주인공이 물살에 휘말릴 때는 카메라도 반쯤은 수면 바로 위에서 주인공을 찍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 같은 카메라 워크로 인해 마치 실제 전쟁터에 들어온 것 같은 깊은 몰입감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다른 전쟁영화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다. 블록버스터급 전쟁영화는 전쟁의 참혹함도 보여주지만, 많은 경우 애국심이나 전우애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그것이 전쟁영화의 감동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1917』은 광기 어린 세계대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반전 메시지를 대놓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묵직하게 전달한다.

두 주인공이 만나려 하는 맥켄지 중령은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역할을 맡은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맥켄지 중령은 매우 침착한 참모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예상되는 전투도 강행하려고 한다. 그는 “(지금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면 다른 명령이 내려올 거다”라며 “이 전쟁을 끝내는 길은 하나뿐이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는 거지”라고 말한다. 몇 년씩 전투가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왜 싸우는지 목표 자체가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희생만이 쌓여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1차 세계대전은 다른 많은 대전처럼 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지긋지긋한 참호전이 계속된 것으로 유명하다.

모두가 참호에서 튀어나와서 전장을 향해 돌격할 때, 주인공 스코필드는 이들의 전진을 끊어내듯이 90도 방향으로 뛰어간다. 이 장면만 보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상한 병사같지만, 그가 전달하려는 ‘전투 중지 명령’이야말로 1,600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다. 전쟁은 그저 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지킨다는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AF**



영화 『1917』



####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클래식 톡톡



## 왜 공연장에선 먹을 수 없을까

코로나의 긴 터널 끝, 2년여 만에 극장과 경기장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졌다. 팝콘부터 탄산음료 등 간식은 영화와 스포츠를 즐기는 순간에 감칠맛을 더한다. 최근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관들이 직원 수를 줄였는데, 간식과 음료 취식이 재개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단다. 집에서 영화를 볼 때도 시원한 음료와 스낵을 즐기며 극장에 온 기분을 만끽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영화를 보는 경우도 많다.

공연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공연장에서는 일체의 취식과 음료 반입, 심지어 꽃다발의 반입도 금지된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제가 클래식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의식이거나 과도한 공연장 에티켓으로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공연장에서의 취식문제에 대해 다뤄볼까 한다.

먼저 영화관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현대의 영화관은 여러 개의 상영관이 한 건물에 모여서 각기 다른 회차와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관이 대부분이다. 배급사 입장에서, 소비자로서도 다양한 영화와 시간대 선택의 자유가 있어 선호도가 높다.

영화관에서의 음향특성은 ‘흡음’이다. 잔잔한 멜로 영화를 보는데 옆 관의 액션 영화 폭발음이 들려서는 안 될 일이지, 각 상영관끼리는 철저하게 소음을 차폐한다. 또 객석에 고르게 음향을 전달하고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벽면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스피커의 음향이 서로의 소리를 방해하거나 중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화관은 기본적으로 흡음재를 사용하여 천장과 바닥재를 구성한다. 그래서 어지간한 객석 소음은 스피커의 음향과 벽면과 바닥의 흡음재에 의해 상쇄된다.

공연장 역시 기본 음향설계는 외부소음과의 차폐다. 공연장 로비가 북적이는 관객들로 가득 차도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면 거짓말처럼 외부소리가 장내와는 차단된다. 그러나 공연장은 영화관과는 다르게 무대 위의 음향을

객석에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반사와 울림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무대 위에서 내는 악기나 사람의 극히 작은 표현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어 객석으로 전달하기에, 섬세한 클래식 음악을 즐기기에 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데시벨(decibel, dB)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독서실의 소음 정도는 30~40dB이다. 또한, 이 수치는 공연장 객석이 조용할 때 수치와 같다.

사람이 들어차 있는 조용한 사무실의 경우는 50dB 정도다. 여기서 일반적인 대화는 60dB, 시끄러운 사무실의 말소리나 전화벨 소리가 70dB 정도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전화벨 소리를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이 둘이 같은 음량의 소음이기 때문에 구별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장은 90dB이다. 사람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는 바로 이 90dB부터 시작한다. 자동차 경적이나 항공기 이륙의 소음은 100dB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제, 공연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의 소음 발생 정도를 살펴보자, ‘와작와작’으로 대표되는 과자류를 씹는 소리가 얼마 정도인지 가늠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놀랍게도 순간소음이 60~70dB 사이다. 과자 봉지나 꽃다발 포장비닐의 부스럭 소리도 70dB이 넘어가고 얼음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지막에 빨대로 빨아내는 소리는 78dB 정도다. 30dB이 최소음량인 공연장에서 자연음향으로 음악이 연주되거나 배우의 대사 동안에 과자를 씹거나 음료수를 빨면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소음이다. 더군다나 공연장 음향 특성상, 와작 소리와 후루룩 소리는 온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영화관에서는 스피커의 백색소음도 있는 데다, 일단 영화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80dB이 넘어간다. 폭발신이나 파도 소리는 100dB이 훨씬 넘어서서 영화관에서의 소음이 청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화관에서는 과자를 씹거나 음료수를 빨아대도 스크린과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상쇄되고도 남는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흡음 구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잔잔한 영화나 공포영화의 숨죽이는 장면에서도 건너편 자리에서 취식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거나 스피커 소리에 묻히기 마련이다.

공연장에서 취식이 금지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영화관에서는 아무리 객석에서 소음을 발생시켜도 스크린 안의 영화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객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무대 위 연주자의 평정을 해친다. 온통 집중해있는 무대 위의 연주자에게, 그리고 극에서 죽음이나 운명적인 순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객석에서 들리는 와그작 소리는 그야말로 저주다. 영화관에서의 소음과 달리 공연장에서의 소음은 무대 위의 연주내용이 바뀔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 살아 숨 쉬는 아티스트의 집중도 높은 연주를 즐기러 일부러 공연장을 찾는 다른 관객에게는 더더욱 큰 재앙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로 공연 때 전화벨 소리를 울린 관객과 그것에 방해받은 관객들 사이에 실랑이나 소송까지 벌어진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닌 라이브공연을 즐기기 위해 시간과 돈을 할애했다 공연장까지 찾아온 관객에게 분노의 대상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AF**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 TREND

## 트 렌 드 가 보 인 다

### 코로나19와 브랜드 소통



출처: Youtube 푸저핸섬



출처: Youtube 현대자동차

####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꾼 일상

코로나19로 2년여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다. 유례없이 긴 감염병의 터널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브랜드들도 변화한 일상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어려워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미디어 콘텐츠 소비다. 출퇴근 시간, 약속 장소에 가는 시간 등 이동시간이 줄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에 사람들의 눈은 미디어 콘텐츠에 머물렀다.

2021년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3%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미디어 이용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동영상 OTT 서비스와 포털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지상파 채널의 시청도 46.6%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소비한 콘텐츠

측면에서는 당연히 뉴스 시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예능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눈을 뜨면 뉴스를 통해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여행이나 공연·예술·극장 관람 등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허해진 마음을 스마트폰과 TV 예능 콘텐츠를 보면서 달래 왔음을 알 수 있다.

#### 집콕 장기화에 브랜드 콘텐츠로 응답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머물게 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들은 어떤 소통을 해왔을까? 코로나 초기에 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거나 집콕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에 광고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는 모든 소비영역에서 온라인 구매의 일상화를 가속화했고, 이에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콘텐츠로 응답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브랜드 콘텐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브랜드 콘텐츠

는 브랜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미디어 콘텐츠에 녹여냄으로써 광고지만 광고 같지 않은 콘텐츠를 말한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일하던 미국 우편 및 화물 특송 브랜드 ‘페덱스(FedEX)’는 영화의 스토리 내에서 무인도 표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배치되어 영화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가지기 때문에 브랜드 광고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한국 영화의 자부심이 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도 브랜드 콘텐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계급사회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영화 전체에서 ‘짜파구리’는 라면에 채끝살을 넣어 먹는 부자들의 일상에 대한 예시로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브랜드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등 물리적 공간에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경험을 가능케 하는 브랜드 콘텐츠에 주목하게 됐다. 이제 기업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브랜드를 잠깐 등장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유튜브 채널 같은 미디어 콘텐츠 플

랫폼을 개설하거나 직접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 코로나 기간 고객과 브랜드를 이어준 브랜드 콘텐츠

코로나19의 원인이 인간의 환경과 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자동차산업의 친환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2021년 현대 자동차는 친환경 수소 전기차 ‘넥쏘(NEXO)’를 전통적인 광고가 아닌 브랜드드 필름 <콧구멍의 탄생>을 통해 선보였다. 현대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콧구멍의 탄생>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숨쉬기가 어려워 콧구멍이 없어진 사람들의 마을에 콧구멍이 있는 가족이 이사 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오염 물질의 발생 없이 에너지와 물만을 발생시키며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넥쏘’의 특별한 기능을 단편영화의 유머러스한 설정에 녹여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한 브랜드드 콘텐츠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이 일상화 되면서 패션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소매점에서의 브랜드 접촉이 어려워진 패션 브랜드들도 온라인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2021년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은 자사 유튜브 채널 ‘푸쳐핸섬(Put Your HANDSOME)’에 웹드라마 <핸드메이드 러브>를 선보였다. CJ ENM과 공동 기획·제작한 <핸드메이드 러브>는 천상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인간 세상에서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옷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는 콘셉트의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다. 기업명이나 로고, 브랜드 등을 일절 노출하지 않고, 자사의 주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여내 브랜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하도록 기획된 본격 브랜드드 콘텐츠이다.

브랜드드 콘텐츠는 미디어에 넘쳐가는 광고에 지친 고객들이 광고를 회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위로를 주는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회복시키고, 감염병의 장기화가 가져온 브랜드의 위기를 소비자와 함께 극복해가고 있다. 광고 같지만, 광고는 아닌 브랜드드 웹툰, 브랜드드 뮤직비디오, 브랜드드 온라인 콘서트 등이 개발되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브랜드드 콘텐츠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sup>AF</sup>



#### 글쓴이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광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래드(Korad, Ogilvy & Mather)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으며, 2003년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카피라이팅, 광고심리, 디지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다. 민간·공공 영역에서 소통 메시지 전략 수립을 도와주고 있다.

# 생각하는 그림

글 | 김은 작가(『독서의 배신』 저자)

그림 | 강은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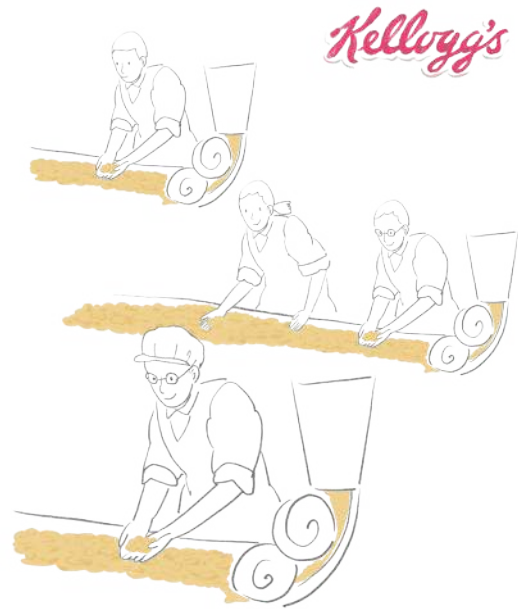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시리얼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는 별명을 가진 콘푸로스트일 것입니다. 오늘은 콘푸로스트를 만든 시리얼 회사 ‘켈로그(Kellogg’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던 1920년대 미국.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많은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켈로그사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8시간 3교대로 가동하던 공장을 6시간 4교대로 바꿔 더 많은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은 전과 비슷하게 유지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직원들이 일을 적게 하고 시간당 임금을 더 받으면 회사에 큰 손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켈로그의 획기적인 시도는 큰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의 능률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률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켈로그의 결단은 미국 사회 전반에 큰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임금은 거의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자,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근무 만족도와 업무 능률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여유가 생긴 노동자들이 캠핑, 레저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비가 촉진되었고, 내수 경기 전반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켈로그의 기발한 해법은 회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중시하는 좋은 이미지 덕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시리얼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혼자 다른 길을 택한다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세차게 흔듭니다. 켈로그의 결단에 다른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고, 경영학 전문가들 역시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죠. 하지만, 켈로그 경영진은 이 결단이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전부터 쌓아온 소비자, 기업 환경, 노동자에 관한 면밀한 데이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창의성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쌓아온 데이터처럼,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다듬어갈 때,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설은 평시에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AF**

# 공군인의 편지

글 | 중사 허승재(공군본부 참모차장실)

##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보니, 내 얼굴 속 희미하게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도 잔잔히 깔린 배경음악처럼 당신의 얼굴이 깔려있네요. 신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나는 당신의 딸이니까요.

아주 어릴 땐 이 세상에 당신만큼 고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흰 피부에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옥구슬 같은 목소리.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했었지요. 정말 닮고 싶었고, 당신 같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리고 여렸지요. 그런 당신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당연한 당신이 스스로에겐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후회한 적 없냐는 나의 물음에 당신은 항상 한결같이 대답

해주었죠. 버거웠지만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너무 무거워 주저앉기도 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다시 태어나도 같은 이름이길 바라는 당신의 이름은 승재 엄마였지요.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했었어요. 그동안 나의 세상이 홀룩했다면, 그건 당신이 홀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세상이고 나는 당신의 세상이니깐요. 내가 힘들 때, 약했던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당신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

다. 나는 그렇게 점점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또 다른 나를 위해, 당신의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해줄 그날이, 당신을 닮아 간다는 것이, 늦었지만 당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을 마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책읽는 공간

글 | 상병 김진웅(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 부정(不淨)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혐오와 분노가 만연하다는 것을 현 시대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각종 매체, 그리고 사회적 이슈만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한 글들에 대해 다수가 부정의 감정을 내뿜는 시대가 현 시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긍정적 감정보단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더 많이 목도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감정들은 그리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어느 시대나 그렇듯 혐오와 분노를 비롯한 부정의 감정들은 어느 맥락에서든 등장하곤 합니다. 『저주토끼』는 그러한 부정의 감정을 담담히 10편의 소설로 풀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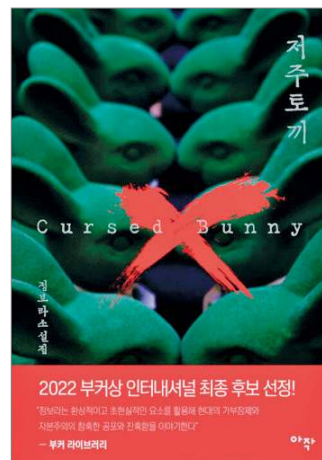
부커상 최종후보에 한국인 작가가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게 된 책에서 인간 본연의 혐오, 욕망, 공포와 같은 부정의 감정이 하나의 서사로써 그리고 지극히 기괴하고 진솔하게 표현된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그다지 유쾌한 주제들을 다룬 도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은 총 10편의 단편 소설을 묶어서 부정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개의 소설만을 실었다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단편 소설이자 이 책의 제목인 『저주토끼』는 독자로 하여금 이 책에서 풍겨오는 공포의 아우라를 몸소 느끼고 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책의 초장부터 중반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갈수록 기승전결의 원칙에 따라 부정의 아우라는 더더욱 강해집니다. 단순 공포를 넘어서서 책 특유의 기괴함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묘사가 정보라 작가의 창의력과 합쳐져 다음 장을 넘기기 다소 꺼려지는 감정이 들더라도 그 분위기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의 중반부의 “몸하다”와 극 후반부의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 “재회”라는 단편 소설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가가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혐오의 정서에 맞춰서, 때로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차용하여, 때로는 현실 그대로를 담담히 글에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하여 부정감정의 세상 속을 독자가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토끼』는 쓸쓸한 이야기들의 모음이자 부정의 감정들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배신과 복수의 감정을 통해 권선징악을 완수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남을 쓸쓸함 속에서 살아갈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이죠.

부정의 감정 속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AF**



**『저주토끼』**  
정보라 지음  
아작 펴냄

#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 망종

6월의 어느 하루. 오전 10시가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누군가를 떠올린다. 모두가 숙연해지는 6월 6일. 이날은 바로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해서,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추념일이다. 한 마디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작 현충일이 왜 6월 6일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현충일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고려 시대까지 올라간다.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로, 젊은 남성 대부분은 매년 군사 훈련을 받거나 전장에 나가 있어야 했다. 그중 30년간 이어진 거란과의 전투를 종결지은 귀주대첩 이후, 고려 현종은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어떻게 기릴지 고민했다. 그리고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 때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어 각자 제사를 지내게 했고,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망종은 보리를 수확하고 벼농사를 시작하는 날이었기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했다.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예전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랐다. 현종이 망종에 장병들의 유골을 가족에게 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장병들이 목숨을 내걸면서 지키고자 했던 국가, 그 뜻을 남은 사람들이 이어받아 더 좋은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난했던 백성들은 가족의 유골을 논밭에 그대로 묻어두었고, 유골은 거름이 되어 땅을 더욱 비옥하게 해주었다. 흙 속으로 돌아간 유골에서 피어난 작물들을 가을에 수확하고 먹으면서, 남은 가족들, 더 나아가 국가 전체가 매년 희생된 장병들을 기억했다.

망종은 가슴 아픈 사건을 개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준다. 동료와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한다. 반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망각한 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또한 지양해야 한다. 남은 사람들은 아픈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교훈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망종, 바쁜 농사철 가운데에도 선조들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제사를 빼놓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의 일상이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감사와 추념의 표현이었다.

6월에는 한국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동족 간의 전쟁인 6·25 전쟁.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국가에서 선조들은 망종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구슬땀을 흘렸다. 그리고, 장병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켜냈던 민주주의와 자유 등 소중한 가치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올해 6월 6일은 공교롭게도 망종과 현충일이 겹친다. 비록 아픈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 마음의 소리

**박향숙**

swha12\*\*@daum.net

5월의 푸르른 하늘만큼이나 공군의 높은 기상과 뜨거운 열정을 잘 느낄 수 있는 5월호였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가정의 달을 빛낸 <삼부자 공군인>과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기사가 가장 감동 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공군이 전하는 따뜻한 미담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해봅니다. (AF, 행복한 5월 보내셨나요? 가정의 달 특집 기사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공군』은 앞으로도 공군 장병들의 따뜻한 미담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예린**

joke\*\*@hanmail.net

임상민 박사의 <Aero Detail> 연재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전투기부터 MUM-T에 이르기까지 용어와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 쏙쏙 들어옵니다. 월간『공군』을 몇 년째 열심히 읽어서일까요? 4월부터 한 방산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무기 수출에 이바지하고 싶은 각오가 큼니다. 아직 성공은 다 월간『공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F, 아직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공군』이 독자님께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로 가득 찬 유익한 월간『공군』이 되겠습니다.)

**최병선**

air24\*\*@naver.com

공군항공과학고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월간『공군』에서 다뤄주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학교도 많이 변했지만,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공군에 꼭 필요한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은 공고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졸업생으로서 든든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학교를 기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F, 정예 우주공군 부사관 양성기관, 공군항공과학고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교관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공군 각 부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후배들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 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http://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터넷: [kyhmm6262@af.mil](mailto: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mailto:afzine@korea.kr))



5 2 8